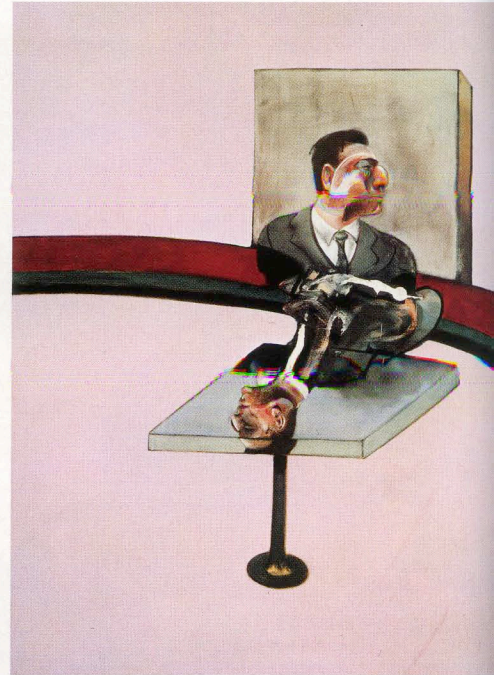


SECRETS OF THE FLESH

5월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 박물관에서 열리는 프란시스 베이컨의 대규모 회고전에 발맞춰 지금 현재 가장 주목 받고 있는 6명의 현대 화가들이 이 20세기 화가가 불러온 창의적인 충격과 영원한 유산을 조명했다.



● 1992년에 세상을 떠난 프란시스 베이컨은 현대 미술의 위대한 지하의 용이다. 인간의 분노와 혼란을 담은 그의 그림들은 우리를 놀라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힘을 잃어버린 적이 없으며, 조형회화—그림칠기—가 아닌 과거에는 뒤쳐졌다고 여겨졌던—와 여전히 씩씩하고 있는 화가들에 끼치는 영향력도 변함없다. 5월 20일부터 8월 16일까지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 박물관(MET)에서 <프란시스 베이컨: 탄생 100주년 회고전>이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새롭고 놀라운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이 틀림없다. 20년 만에 뉴욕에서 처음 열리는 베이컨의 대규모 전시회는 이미 런던 테이트 미술관과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에서 선보였으며, 엄청난 관객을 끌어들였다. 이번 전시회에는 모든 시대의 그림들이 총망라되어 있고, 저저분하기로 유명한 그의 스튜디오에서 건져낸 원본들(일기와 편지)로 구성된 귀중한 컬렉션도 포함되어 있다. 베이컨은 종종 잡지에서 발견한 사진들로 작업을 했는데, 가장 거칠고 통렬하며 농축된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 찢고 접고 낙서한 작품들도 전시될 것이다. “베이컨의 근본적인 목표는 당신을 경악시키는 것입니다”라고 MET에서 19세기·근대·현대 미술을 담당하고 있고, 이

번 전시회를 기획한 게리 틴터로우는 말한다. “그는 당신의 자신감을 뒤흔들어 놓고, 세상을 다르게 보게 만들고, 인간 본성의 근본적인 폭력성을 드러내고 싶게 만듭니다. 자신의 예술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파괴되어야 하는 끔찍한 괴물 아버지의 형상과 싸우거나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의 관점에서 볼 때 그는 우리 시대의 피카소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베이컨의 평판은 오르락내리락 해왔다. 지난 71~72년 파리의 그랑 팔레에서 열린 회고전 기간 동안 비평가들은 투표를 통해 그를 살아 있는 가장 위대한 예술가로 뽑았다. 피카소가 아직 살아 있었는데도 말이다. “그에 대한 평판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왔어요. 많은 젊은 아티스트들이 조형 회화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가 그들에게 가르쳐줄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라고 틴터로우는 말한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나는 현재 가장 주목 받고 있는 6명의 현대 아티스트들에게 베이컨에 대해 물었다. 그의 작품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고, 지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그의 영향력이 어떤 식으로 지속되고 있는지. 그들의 대답은 한결 같았다.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베이컨 같은 화가는 없다는 것이다.

Splinter Cell

프랜시스 베이컨이 자신의 뮤즈이자 연인이었던 조지 다이어를 그린 1971년 작. <조지 다이어를 추억하며> 3부작.(왼쪽) 1969년작 <누워 있는 인물>. 이 작품을 비롯, 베이컨이 그린 대부분의 작품들은 이번 MET 전시에서 만날 수 있다.(오른쪽)



Kazanjian, Dodie. "Secrets of the Flesh." *Vogue Korea* (June 2009).



Cecily Brown

나는 데이비드(실베스터, 미술사 학자이자 브라운의 아버지)와 함께 그를 딱 한 번 만난 적이 있다. 우리는 로열 아카데미에서 열리는 이태리 미술 전시회를 보러 갔다. 이제 막 아트 스쿨에 입학했던 난 그 위대한 인물에 매혹된 나머지 거의 말을 하지 못했다. 아트 스쿨 초기 당시 나의 모든 그림은 아첨하는 듯 베이컨의 그림을 닮아 있었다. 80년대 후반에 런던에서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의 그림을 눈여겨봤을 것이다. 특히 자신의 몸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던 사람이라면 더욱 그랬을 것이다. 그는 과거의 그림들과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나는 남자를 그리는 그의 방식이 마음에 든다. 그것은 부드럽하면서도 에로틱하다. 그가 성행위 장면을 표현한 방식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사람들은 폭력적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가 조지 다이어의 등이나 남자의 뒷머리를 묘사한 것을 보면 터치가 아주 사랑스럽고 모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그의 그림은 잔인하지만 그 안에는 애무와 상냥함도 있고, 연인의 시선과 욕망도 느껴진다. 그것이 내가 늘 추구해 온 것이다. 나는 그에게서 감상적이지 않은 부드러움을 훔쳐 오고 싶었다. 내 그림이 관객의 신경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길 바란다는 점에서 그는 그 누구보다 큰 영향을 미쳤다.

그의 초기 작품들은 아주 남성적이고 거칠지만 늘 시적이다. 그가 그림으로만 얘기할 수 있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애썼다는 느낌이 든다. 그는 하나의 언어를 만들어냈다. 피카소의 흔적을 느낄 수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의 퇴폐적인 삶 때문에 음울한 영국적인 분위기도 느껴진다. 그는 그것을 캔버스 위의 공간 속에 농축시켰다. 그의 제자들? 그에게는 어떤 제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몇몇 아티스트들이 베이컨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보면 정말 짜증이 난다. 자신을 그와 같은 급으로 얘기하는 것은 허영이다.

In the Bedroom

세실리 브라운의 2006년 작
(Skulddiver 4). 그녀는 베이컨이
성적인 행위를 그려내는 힘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한다.

Lisa Yuskavage

아트 스쿨 재학 당시 베이컨의 그림을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나는 '저건 내가 동참하고픈 파티야'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결코 무기력한 예술이 아니라 아주 강렬하다. 자재로움, 깊이, 힘. 지금까지 베이컨 같은 화가는 없었다. 그의 작품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불안감이다. 그것은 너무나 크다. 머리 위로 떨어지는 폭탄 같다. 더 이상 극단으로 몰고 갈 수는 없다. 그 자체가 마지막 판이다. 그 그림의 힘과 그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림의 외형과 테크닉은 어떻게 해서라도 피해야 한다. 그것은 마녀(사이렌)와 같다. 여러분은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그러니 거기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좋을 것이다.

나는 얼마전 얼굴에 파이를 맞은, 노출이 심한 여성을 그린 새로운 그림 몇 점을 끝냈다. 마음에 드는 점은 그것이 아주 회화적이면서도 동시에 그림으로 완전히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예술 포르노처럼 보인다. 여러분이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는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이 예술이라고 확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도를 넘어서는 것이 게임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일단 큰 변화를 시도한 다음 그래도 괜찮은지 묻지 않는 것이다. 당신은 허락 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베이컨이 했던 방식이다.



Slice of Life

리사 유스케이바게의 2008년 작,
(PieFace). 그녀는 "베이컨의
작품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불안감"이라 지적한다.

SKULDIVER 4, 2006-2007, OIL ON LINEN 85"X89" COURTESY OF CECILY BROWN AND GAGSIAN GALLERY.
PIEFACE, 2008, OIL ON CANVAS 40"X40" COURTESY OF THE ARTIST. DAVID ZAMBER, NEW YORK
HOMAGE TO MATILDE, 2008, OIL ON LINEN 80"X80" COURTESY OF THE ARTIST. HOMAGE TO MATILDE

Mad about You

조지 콘도의 2008년 작, 《Homage to Matisse》. 콘도는 베이컨의 작품 속에서 느껴지는 공포라는 감정에 영향을 받았다.



George Condo

나는 프란시스 베이컨이 벨라스케즈의 그림을 변형한 것처럼 그의 그림을 변형하고 싶었다. 나는 교황보다 계급이 낮은 비명을 지르는 성직자들 그림으로 그것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고양이 비롯해 피카소와 베이컨과 바스키아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정신 나간 얼굴에 집착했던 아티스트들이 몇 명 있었다. 그중 내가 사랑하는 가장 재미있는 화가 중 두 사람이 바로 고양이와 베이컨이다.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사람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코미디는 항상 공포를 유포시킨다. 나는 베이컨이 2차 대전과 그 후에 작업을 할 때 그 시대의 공포뿐만 아니라 파괴의 코미디를 반영했다고 생각한다. 코미디의 아이러니는 그것이

자기 고문을 통해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베이컨이 그리도 소중한 이유다. 그는 작품 속 인물들에게 고문을 가한다. 그는 벨라스케즈의 교황 이노센트 그림을 수없이 고문했다. 공포는 코미디의 또 다른 주제다. 베이컨의 그림들은 심각한 공포 상태를 조장한다. 그 결과 그것을 보는 사람들도 공포를 느끼게 된다. 그것이 그의 위력이다. 베이컨은 에이젠슈타인의 영화 《전함 포템킨》에서 산산이 부서진 안경을 끼고 있는 정신 나간 여인의 클로즈업 장면애 매료되었다. 그 모든 것이 인간 본성의 극단성으로 요약된다. 나는 현실에 대한 베이컨의 냉혹한 시선을 사랑한다. 그의 그림은 이주 우아하고 지독한 숙취 같다.

Walton Ford

나는 고야의 20세기 버전이라 할 수 있는 베이컨을 좋아한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두려움과 지극히 어두운 마음 상태를 명확하게 표현하려고 애썼다. 그는 아주 불안한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했다. 나도 그런 용기를 갖고 싶다. 내가 그리고 있는 작품들인 <자연사(Natural History)>에 대한 설명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 정신의 보다 어두운 면에 대한 탐구이기도 하다. 그리고 내게 동물들은 그것에 대한 훌륭한 메타포 역할을 한다. 베이컨의 모든 작품들 중에서 고립되어 있는 개 그림보다 더 인간적인 것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고야도 울부짖는 작은 개를 그렸다. 이 동물 그림은 두 사람이 그린 가장 의미심장하고 감정적인 작품이다.

자연사를 그린 작품들처럼 베이컨 최고의 작품들도 비유적인 이미지들과 순수한 추상 디자인 사이의 긴장감을 담고 있다. 베이컨의 작품들 전체는 개별적인 그림 하나하나 보다 위대하다. 비명을 지르는 교황, 고깃덩어리, 개, 레슬러, 화장실에서 죽어가는 연인, 그리고 그 모든 기이한 포트레이트들을 떠올려 보면, 내가 그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기분이 든다. 베이컨은 마음 속에 많은 고통을 안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작품들은 그런 고통을 건설적인 것으로 승화시키려는 놀라운 노력의 결과였다. 비명을 지르는 교황을 보라. 그것은 우리가 화를 토해내는 바로 그 모습이다. 그것은 물감으로 표현된 분노다. 나는 예술적으로 승화된 분노를 아주 좋아한다.

Dana Schutz

사람들은 종종 내게 말한다. "베이컨을 아주 좋아하나 봐요." 나는 그가 그림 속 공간을 구성하는 방식에 흥미를 느낀다. 연극 무대 같은 배경과 그 안에 사람들을 배치하는 방식. 그것이 내가 베이컨에게서 배운 것이다. 그러나 그는 내게 몽크나 필립 거스톤(Philip Guston)처럼 위대한 인물이 아니었다. 무언가에 영향을 받았다 해도 그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Call of the Wind

월튼 포드의 2007년 작 <A Monster from Guiny>. 포드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동물들은 베이컨이 그랬듯이 어두운 감정에 대한 비유법과 같다.

John Currin

베이컨은 내가 모방한 최초의 아티스트였다. 나는 그에게 사로잡힌 나머지 것처럼 되고 싶었다. 나는 그의 그림들과 자화상을 보잘것없는 파스텔화로 그대로 옮기곤 했다. 그의 많은 작품들은 헤비메탈 록처럼 일종의 사춘기적인 매력을 담고 있다. 그것은 악취미이고 공포스럽다. 사람들은 10대 소년들이 블랙 사바스를 좋아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베이컨을 좋아한다고 농담을 한다. 악마적인 매력이 그들에게 어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야와 벨라스케즈와 마네도 그런 악마성을 좋아했다. 그것은 20세기 미술에서 사라진 그림의 커다란 부분이다. 너무나 불길한 이 시대에 그런 요소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베이컨의 그림들은 재미있는 구식이다. 그의 그림에는 진정한 모더니스트다운 면모가 없다. 하지만 물려받은 것이 별로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장엄양식(Grand Manner)에 대한 그의 접근 방식은 존경할 만하다. 어쨌든, 우리가 베이컨의 그림에서 느끼는 감정은 웅장한 저택을 보았을 때 느끼는 것과 비슷하다. 세금을 감당할 수가 없고 난방할 돈이 없는 그런 저택. 그러나 단순하고 세련되지 않은 테크닉에도 불구하고 그는 위대한 그림을 완벽하게 그릴 수 있었다.

나는 베이컨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다. 왜냐하면 그가 별로 쿨하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그는 그렇지 않았다. 그는 정말 훌륭하다. 그에게서 멀어질수록 여러분은 그가 기인이라기보다 자기 시대를 정확히 표현한 예술가로 느껴질 것이다.

글 / 도디 카잔지안(Dodie Kazanjian)



Stagestruck

데이나 Schutz의 2008년 작 <I'm into Shooting Natural Environmets>. 그녀는 베이컨의 공간 구성을 존중한다.

Measure for Measure

존 커린의 1997년 작 (Jaunty & Mame). "베이컨의 그림들은 재미있는 구식이다" 라고 말하는 커린은 베이컨을 시대를 정확히 표현한 예술가로 정의한다.



Kazanjian, Dodie. "Secrets of the Flesh." *Vogue Korea* (June 2009).